



즉시 배포용: 2024년 10월 21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8월 18일~19일 악천후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를 위해 BIDEN 대통령의  
중대 재난 선포 확보**

*서퍽, 오스위고, 루이스 카운티에 연방 재난 지원 제공 선포*

*또한 뉴욕에 인명 손실을 줄이고 재산을 보호하려는 장기적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FEMA의 위험 완화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권한 위임*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Biden 대통령이 중대 재난 선포(Major Disaster Declaration)를 승인해 8월 18일과 19일 발생한 악천후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에 연방 지원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선포로 서퍽, 오스위고, 루이스 카운티의 공공 인프라 재건 지원을 위한 연방 재정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뉴욕주는 대통령의 주택 소유주 직접 지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우리는 곧 올해 여름 악천후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8월 18일과 19일 발생한 악천후의 영향으로 우리 주에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고, 저의 중대 재난 선포 요청을 승인해 주신 Biden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 제 행정부는 향후 수 주간 연방 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과 직접 협력하여 피해자들이 회복 및 재건 과정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중대 재난 선포를 통해 1차적으로 [FEMA의 연방 지원 프로그램\(Public Assistance Program\)](#)을 통한 연방 재정 지원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은 지방 정부와 지원 대상 비영리 단체에 제공되어 잔여물 처리, 보호 조치를 비롯해 도로, 교량, 상하수도 처리 시설, 학교, 공원, 기타 시설 등 건물 및 인프라 수리에 사용됩니다.

이 선언의 일환으로 뉴욕은 또한 FEMA의 위험 완화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대통령의 재난 선언에 이어, FEMA는 자연 재해로 인해 생명을 잃거나 개량한 부동산이 피해를 입는 일을 줄이기 위해, 주정부가 지역 위험 완화 계획 및 장기적인 위험 완화 조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합니다. 선포에 포함된 카운티에 위치한 지방 정부를 비롯해 정부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일부 비영리 단체는 보조금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이 자금은 뉴욕주 내 모든 카운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달에 공개됩니다.

이번 선포에 앞서 주지사는 피해 지역사회 복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진행했습니다. 8월 23일 Hochul 주지사는 기록적인 강우로 인한 돌발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지원책을 발표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뉴욕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ew York Homes and Community Renewal)는 나소 및 서퍽 카운티의 주택 소유주를 위한 긴급 수리 프로그램을 시작해 지원 대상 주택 소유주에게 50,000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여름 초 악천후 발생 후 루이스 카운티 역시 이번 프로그램을 비롯해 미 중소기업청(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의 저리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주지사 사무실에 업데이트 신청하기: [ny.gov/signup](http://ny.gov/signup) 81336번으로 NEW YORK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세요

[구독 취소](#)